

처음 맺은 소중한 결실... "한가위만 같아라"



광주시도시공사 새내기 직원들이 12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신규 업무교육을 받은 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잠시 농부의 마음이 되어 본다. 한 끼의 식사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한 해를 시작하며 좋은 종자를 고르고, 먼저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 놓은 뒤 눈을 갈아 엷는다. 볍씨를 소금물에 넣어 우량한 것만 골라내고, 소독한다. 소독한 볍씨를 물에 담고 10일 이상 매일 새물로 갈아준다. 체로 잘 걸러낸 황토로 모판을 만들고 볍씨를 적정하게 뿌린다. 모판을 쌓고 맨 위에 보온 덮개로 덮어 기온을 유지하면 조그맣게 싹이 나온다. 이것이 '모'다. 눈에 퇴비를 섞고 물을 댄 후 비로소 모내기를 할 수 있다. 이후 병충해, 태풍이나 가뭄 등 자연재해 등 술한 고난을 이겨내고 9개월여의 시간이 지나면 벼가 황금빛으로 일렁인다. 비로소 가족들에게 흰 쌀밥을 '고봉'으로 퍼 줄 수 있는 시간이다. 농부는 그 모습을 고대하며 온갖 힘들을 묵묵히 이겨냈을 것이다.

<관련 기사 2·3면>

추석은 농부의 성실함과 기다림으로 일궈낸 성과를, 기다렸을 가족과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명절이다. 시대가 바뀌어 기계 문명이 농부의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일부러 아껴주었다고 한들 그

불혹 나이에 낳은 첫 아이·초짜 농부의 첫 수확·첫 직장서 맞은 추석... "고생했다" "덕분이다" "사랑한다"... 소중한 사람들과 에너지 나눌 시간

정성과 노력의 가치를 발휘할 수는 없다. 일미질근(一米七斤), 한 톨의 쌀을 위해 농부가 7근(4.2kg)의 땅을 흘린다는 말이다. 모두가 그 농부의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 업무, 공간, 방식 등이 다르겠지만, 누구든 자신의 시간을 들여 어떠한 성과를 고대하는 사람이라면, 농부만큼 아니 그 이상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일 것이다.

"고생했다", "덕분이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고 해야 한다. 가족들이 뽀뽀이 즐겨져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되는 세상에 몇 번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소중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듬뿍 안겨줘야 할 시간이다. 광주일보에 올 들어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정성으로 소중한 성과를 안은 이들을 만났다.

올해 불혹의 나이인 41세에 지난 9일 첫 아이를 낳은 강성자·곽형석 동갑내기 부부는 노산, 초산, 난임을 극복하고 결혼 7년만에 귀한 아이를 얻었

다. 시험관 시술 10번 만에 2세를 안아보게 된 것이다. 가슴 벅찬 아들과의 만남은 이 부부에게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한 수확에 없다. 화분에 물 주는 것조차 서툴렀던 '초짜' 농부 이우영(24)씨는 올해 첫 수확의 기쁨을 맛봤다. 10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정성껏 키워낸 보라, 흰색, 연분홍 수국 등 1만5000송이를 트럭에 실어 경기도 화훼시장에 내다 팔았다. 앞으로 1만평 수국 농장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이 20대 농부가 펼칠 삶을 응원한다.

올해 누구나 부러워하는 지방공기업에 취업한 이들은 어깨에 날개를 단 듯 시간이 훌쩍 간다. 지난 2일 광주도시공사에 임용된 19명의 신입 사원들은 이번 추석에 비로소 집안 어른들 만날 생각에 들뜬 기분이다. 중소기업 직원, 계약직,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입사한 이들은 새벽시간까지 공부하는 등 분명 남다른 노력을 쏟아부었

다. 70이 다 된 술명인은 자신이 만든 전통주를 올해 독일에 첫 수출하는 것을 감격에 겨워했다. 지난 2000년 대한민국식품명인 22호로 지정된 양대수(68) 추성고를 대표는 일평생 술을 빚어오면서 이렇게 들뜬 적은 처음이다. 광주본부세관 수출입 기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만든 대일술을 독일에 수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는 잠도 이룰 수 없다.

20대 젊은 나이의 대표 이사는 자신이 생산한 '다공성 광물질 구조의 광촉매 황토보드'가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서 비로소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했다. 힘들어도 꺾이지 버티는 조재원(27) 유학회사 마나 대표이사. 그는 할아버지때부터 보드를 생산하던 기업 노하우에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 발생과 불 번짐을 예방한 황토보드를 개발해냈다. 광주지방조달청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받으면서 앞으로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에 앞으로의 희망에 부푼 마음을 억누르기 어렵다. 17억원이었던 올해 매출 목표를 30억원으로 올려 잡기도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의대 '1대학·2병원' 제시...공동의대도 논의

용역기관, 추천안 발표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방식이 '1대학 2병원 신설'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의대 추진도 계속 논의될 전망이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 통합을 전제로 공동의대 추진을 합의하면 국립 의대 설립방식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가 공동의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남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지역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용역 수행기관인 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하 용역기관)은 12일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추천안을 제시했다.

용역기관은 도민공청회(6회)와 여론조사, 대학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대를 선정할 뒤 동·서부권에 2개의 대학병원을 신설하는 안을 추천했다. 의대 입학정원은 오는 2026학

년도 타 지역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 규모를 고려하면서 지역의 의료인력 수요를 감안, 200명 내외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남 동부·서부 모두 의대와 부속병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가 국립대학 간 통합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양 대학이 통합을 약속한다면 공동의대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양 대학이 '대학통합 전제 공동의대 추진 협약서'를 제출하면 선정위가 중앙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사전심사위원회와 평가심사위원회는 공모 추진과 공동의대 추진 절차를 모두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대학병원의 경우 2개 병원을 합해 1000~1200병상 규모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설립하되 병원별 구체적 규모는 대학에서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해당지역에 들어서는 각 대학병원은 지역 특성에 맞춰 특화 진료영역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경상국립대병원(진주·893병상)·창원경상국립대병원(525병상)이 2개 대학병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용역기관측 설명이다. <5면으로 계속>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독자 여러분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 연휴 날씨

13일(금) 소나기 24/34	14일(토) 소나기 25/34	15일(일) 소나기 25/32
16일(월) 소나기 26/33	17일(화) 소나기 25/33	18일(수) 소나기 25/33

추석 특집 32면 발행

- 광주·전남 한가위 희망가 ▶ 1~3면
- 추석 연휴 응급 진료체계 안내 ▶ 6면
- 추석 문화 프로그램·극장가·OTT ▶ 8~10면
- 한 눈에 보는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 16~17면
- 추석 연휴 TV 프로그램 가이드 ▶ 26~27면



추석 연휴 16~18일 신문 쉽니다
광주일보 모바일은 쉬지 않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하는 이유

1
굿 탄수화물!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므로 아침밥을 통해 뇌에 적절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2
굿 탄수화물!

아침을 거르면 두뇌 활동에 필요한 포도당 부족으로 집중력과 사고력, 심리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굿 탄수화물!

쌀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쌀밥은 다양한 음식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균형 잡힌 식사가 가능합니다.

당신의 아침밥엔 '밥'이 있나요?
**직장인 아침활력
아침밥으로 깨우세요!**